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7. 21.(목) 15:00 (2022. 7. 22.(금) 조간)	배포 일시	2022. 7. 21.(목) 09:00
담당 부서 <총괄>	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	책임자	팀 장 최진혁 (044-202-4511)
		담당자	사무관 황윤지 (044-202-4545)

과기정통부 · 인천시, UN과 손잡고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이전 전격 지원!

- 개도국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확산을 담당하는
UN 산하 국제기구(CTCN)의 최초 지역사무소 개소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7월 21일 「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」을 UN · 인천시와 공동 개최하였다.
 - ※ 일시 / 장소: 7.21(목) 15:00~18:00 / 인천 송도 G타워 23층
 - CTCN(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)는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UN산하 국제기구(본부: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)로,
 - 개도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고,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.
- 이날 개소식에는 사무소 설립을 기념하고자,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,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(비대면)이 참석하였으며,
 -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하여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고,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확대를 촉구하였다.
-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전 세계 최초로 설립되는 CTCN의 본부 외 지역사무소로, 지구상에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는 아시아

-태평양 지역*에 집중적으로 기후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.

* 작년 한해 해수온도 상승률이 지구 평균의 5배, 육상 기온 상승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, 전 세계 자연재해 중 40%가 아태지역에서 발생('19년)

□ 사무소는 CTCN 회원기관*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이 개도국 현지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후기금(GCF, 약 200억불 규모)과 같은 대규모 재정 기구와 협력할 예정이며,

* 기후기술 분야의 기술 개발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산학연 등 기술협력 참여 기관으로, 대한민국의 CTCN 회원기관은 총86개로 세계 최대(전 세계 CTCN 회원기관 중 약 12%)

○ 기술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도국 현지 소규모 실증(RD&D)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이다.

□ 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, 과기정통부는 5년 간 100억 원, 인천시는 5년 간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,

○ 특히 과기정통부는 UN이 지정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주관하는 대표기관(NDE*)으로,

* NDE(National Designated Entity)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별 기후기술 협력을 담당하는 공식 지정기구로, 한국의 NDE는 과기정통부로 지정('15.12월)

○ 국내 CTCN 회원기관이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기후기술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□ 오늘 행사에서는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의 설립을 공식 선포하고 사무소 운영계획을 소개함과 더불어, 한국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'기후기술협력 협의체'를 발족하였다.

○ 본 협의체는 기술의 해외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술전문기관, 기술협력 사업의 자금을 지원·운영하는 재정기관, 그리고 해외 현지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중재하는 국제협력 전문기관 각 분야별 국내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-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사업을 공동 기획·운영하여 국내 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성공사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
-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“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세계 최초로 설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,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고 하면서,
 - “한국의 우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해외 기술이전 역량을 토대로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, 선진국-개도국 간 기후변화 대응 기술협력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.”고 밝혔다.
-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“CTCN 협력연락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인천의 송도는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은 물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”라고 하면서,
 - “인천시는 CTCN 협력연락사무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 수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“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개도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플랫폼으로서 운영될 것”이라며,
 - “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,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확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 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공동>	인천광역시 GCF 국제협력팀	책임자	팀 장	손혜원 (032-440-8586)
		담당자	주무관	황영란 (032-440-8588)
<관계기관>	녹색기술센터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	책임자	센터장	김태건 (02-3393-3927)
		담당자	팀 장	신종석 (02-3393-3951)

붙임1**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 세부내용**

시 간	주요내용 [발언자]
【1부: 개소식 및 기후기술협력 협의체 발족】	
15:00 - 15:05 (5분)	내빈 소개 [TEC 한국인 위원(GIST 국제환경연구소 강수일 국장)]
15:05 - 15:40 (35분)	축사 [과기정통부 장관, UNEP 사무총장(영상), CTCN 사무국장, 인천시 정무부시장, 외교부 기후변화대사, UNESCAP 동북아사무소장, 녹색기후기금(GCF),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(GGGI)]
15:40 - 15:50 (10분)	CTCN 사무국 및 협력연락사무소 소개 [CTCN 사무국장]
15:50 - 16:00 (10분)	대한민국-CTCN 기후기술협력 경과 및 기후기술협력 협의체 소개 [녹색기술센터(GTC) 소장]
16:00 - 16:10 (10분)	기후기술협력 협의체 소개 및 발족 [참여기관: CTCN, 녹색기술센터(GTC),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(GGGI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해외건설협회(ICAK)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KETEP)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, 세계은행(World Bank), 한국수출입은행(KEXIM), 한국산업은행(KDB),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, 한국에너지공단(KEA)]
16:10 - 16:15 (5분)	기념촬영
16:15 - 16:25 (10분)	휴식 시간
【2부: 주요 관계기관별 협력계획 발표】	
16:25 - 16:35 (10분)	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(GGGI)의 협력계획 [GGGI 한국협력팀]
16:35 - 16:45 (10분)	기후기술 보유기업의 해외진출 프로그램 [한국산업은행 ESG기획부]
16:45 - 16:55 (10분)	세계은행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(KGGTF)의 역할 및 기후기술 확산 지원 현황 [세계은행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 총괄매니저]
16:55~17:00	폐회사 [G77 의장(Nabeel Munir 주한파키스탄대사)]
17:00~	리셉션

□ 연혁

- 「대한민국과 유엔환경계획 간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」 체결('21.09.27)
- 「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인천광역시 및 유엔환경계획 간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행정과 재정에 대한 약정」 체결('21.10.07)

□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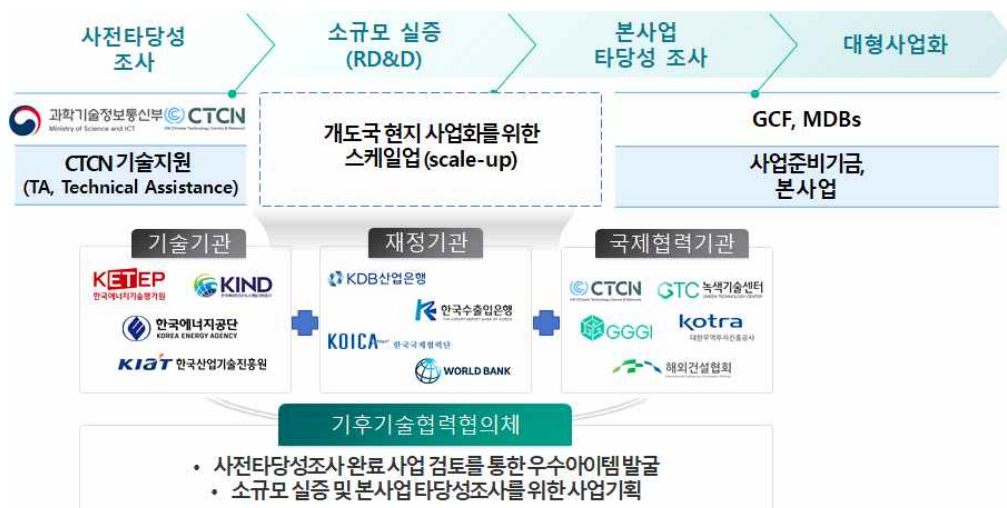
- (소재 / 운영기간) 인천 송도 G-타워 / ~'26. 10. 7.
- (목적)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이전 기회 확대 및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선도를 위한 GCF(Green Climate Fund, 녹색기후기금) 등 대규모 재정기구와 협력 추진
- (예산규모) 5년간 총 125억 원 (25억 원/年)
※ 과기정통부가 총 100억 원(20억/年), 인천시가 총 25억 원(5억/年) 지원

□ 주요 활동

- (GCF와의 협력)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분야 기술지원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의 해외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GCF와의 협력
- (아 태지역 개도국 정부대표자 역량강화) 기후기술 협력을 담당하는 각국 정부대표자 및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킹 행사, GCF와의 공동 워크숍 개최
- (기후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서비스 제공) 기술의 개도국 현지 실증을 위한 기술보유 기관 및 현지 이해관계자 간 협력사업 개발·운영
- (개도국 기술지원 사업) 개도국의 기술수요 또는 기술 보유기관의 기술이전 수요를 바탕으로, 사업 이행을 위한 국가 간 협의 중계 및 기술의 현지타당성 조사 지원

□ 개요

- (목적) 개도국 현지 대형사업화, 탄소감축량 확보 등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사전타당성 검증 이후 대형 재원 연계사업의 기획 및 추진체계 마련
- (내용) 개도국 기후기술 이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·소규모 실증·대형 사업화 추진체계를 정립하고, 우수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스케일업(scale-up) 추진



- (참여기관) 기술 기관, 재정기관 및 국제협력 전문기관으로 구성
 - (기술전문기관) 기술의 적합성, 성숙도 등 기술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
 - (재정기관) 사업 규모 확대, 투자 가능성 등 경제성 검토
 - (국제협력 전문기관) 사업 아이템 선별 및 현지 협력채널 연계

□ 향후 운영계획

-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에서 운영하는 GCF(녹색기후기금) 협력사업, 개도국 현지실증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참여
 - GCF 사업발굴 TF 등과 연계하여 GCF 인증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기후기술 해외 협력사업 유치 방안 모색
 - 산업은행 주관 '기후기술 보유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'과 연계하여 국내 기관-개도국 유망기업 간 합작회사 설립 및 현지 사업화 추진